

# 전남대 의학 289점·조선대 의예 286점

## 2027 수능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

한국에너지공대 273점·GIST 266점·광주교대 236점

광주진학부장협 등 분석...8월 5~12일 '1대1 대면상담'

지난 4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 대한 가채점 결과 서울대(국·수·탐 원점수 300점 기준)는 인문계열 273점, 자연계열 274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남대 의학과(지역) 289점, 치의학전문대학원(지역) 284점, 조선대 의예과(지역) 286점, 치의예과(지역) 282점 내외에서

지원선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는 273점, 광주과학기술원(GIST) 원 266점, 광주교대는 236점대가 지원 가능 점수로 제시됐다. 자연계열은 서울대 지원 기준인 미적분 또는 기하, 과학탐구 2과목 응시 학생 표본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인문계열 268점, 자연계열 270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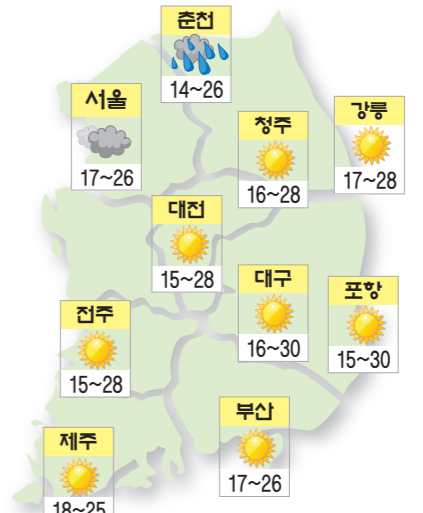
273점,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266점, 광주교육대학교는 236점대가 지원 가능 점수로 제시됐다. 전남대학교 인문계열은 국어교육과 244점, 영어교육과 239점, 경영학부 235점, 행정학과 232점, 정치외교학과 231점, 국어국문학과 229점, 인문계열은 226점 내외로 전망됐다. 자연계열은 의학과 지역인재전형 289점, 치의학전문대학원 지역인재전형 284점, 약학부 지역인재전형 278점, 수의예과 277점, 전기공학과 252점, 간호학과 245점 등으로 분석됐다. 조선대학교는 의예과 지역인재전형 286점, 치의예과 지역인재전형 282점, 약

학과 지역인재전형 277점, 간호학과 지역인재전형 228점으로 예상됐다. 분석팀은 정시 선발 비율이 전체 정원의 2.3% 수준에 그쳐 △수시 이월 인원에 따라 정시 모집 인원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영어 등급에 따라 실제 지원 가능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실제점 이후 대학별 환산점수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유의사항으로 제시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오는 7월7일 고3 진학부장과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제점 결과 분석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5~12일 '수시모집 대비 1대1 집중 대면상담'을 운영한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맑음 05:18 달맞이 01:21  
맑음 19:46 달맞이 14:17



광주	☀️	15~29
목포	☀️	16~27
여수	☀️	16~26
순천	☀️	15~28
구례	☀️	14~29
광주	☀️	14~28
신도	☀️	15~28
흑산도	☀️	18~24
고흥	☀️	14~28
진도	☀️	14~26

목포	밀물(고)	08:59 / 21:51
	썰물(저)	02:09 / 14:50
여수	밀물(고)	04:07 / 17:04
	썰물(저)	10:36 / 22:58

## 제주항공 참사 현장 수색 15일 재개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등 투입

잠정 중단됐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미수습 유해 수색이 오는 15일부터 재개된다.

9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오염 토양 처리와 수색 절차 등을 확인한 뒤 오는 15일부터 수색을 재개한다.

수색은 전면 재개가 아닌 발암물질이 검출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인근 토양오염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이뤄진다.

수색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투입되며 보다 정밀한 확인을 위해 기존 8mm보다 촘촘한 5mm 체가 사용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한 민간업체 직원들이 오염 토양을 굴착해 체로 거르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체에 걸리진 물체는 유해발굴감식단이 유해 여부를 1차 판별하고, 유해로 확인될 경우 전념경찰청 과학수사대에 인계된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거쳐 신원 확인 절차가 이뤄진다. 민간업체가 오염 구역 수색을 마치고 토양을 모두 반출해 안전성을 확보한 뒤에는 경찰과 군 인력이 투입돼 나머지 구역에 대한 재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유가족과 수색 당국은 앞서 지난달 11일 로컬라이저 주변 토양에서 카드뮴이 검출되자 현장 안전 문제를 우려해 조사를 중단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양수기·수증펌프 가동 훈련. 9일 오후 광주전 중앙대학교 일원에서 열린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양수기·수증펌프 가동 훈련에 참석한 정석환 광주 남구 부구청장과 지역자율방재단과 동행정복자센터 공무원들이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인력 동원 및 침수 피해저지 신속 대응을 위한 양수기 가동 훈련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광주시민단체, 고 이채원양 추모공간 마련

광주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 1층 로비...21일까지 운영

광주 도심에서 흉기 피습을 당해 사망한 고 이채원 학생(17)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다.

광주전남추모연대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이채원 학생 추모모임은 9일 광주 광산구 광주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 1층 로비에 기억공간을 마련했다.

오는 21일까지 운영되는 기억공간에는 인형, 의류, 어린 시절 사진 등 이양의 유품과 생애를 돌아볼 수 있는 물품들이 놓였다. 가천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설명회에 참석한 뒤 남겼던 기록과 119구급대원 활동복도 함께 전시됐으며, 생명을 살리는 응급구조사를 꿈꾸며 노력했던 흔적들도 놓였다.

재단과 추모 공간에는 추모객들이 남긴 국화꽃과 애도 메시지가 이어졌다. 단체는 49재를 하루 앞둔 21일 오후 5



광주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 1층 로비에 마련된 고 이채원 학생 기억공간.

시 시민협치진흥원 앞마당에서 추모식을 열 예정이다.

광주전남추모연대 관계자는 "기억공간은 단순히 슬픔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이웃을 돕는 꿈을 품고 살아온 채원이의 삶을 함께 기억하는 공간이다"며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 5·18부상자회 정상화추진위 "비선실세 의혹 규명을"

근무일지 공개하며 조직 장악·갑질 정황 주장

당사자 "현 집행부 흠집내기...법적 대응 검토"

5·18민중화동부상자회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추진위)가 특정 인물 이 단체 운영 전반에 개입하며 사실상 '비선 실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과 조직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상화추진위는 9일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인물이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운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공로자회 전 임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근무일지를 공개했다.

정상화추진위에 따르면 근무일지에는 해당 인물이 조직 운영과 집회 동원, 행사 준비, 회원 관리 등에 관련한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 또 2023년 1월부터 공로자회 사무실 회의와 각종 행사 준비 과정에 참여하며 직원과 임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정황도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무실 출입 비밀번호를 관리하거나 특정 회원을 단체 채팅방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정상화추진위는 해당 인물이 임원과 회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특정 인사를 조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기록에는 임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회분을 발로 차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같은 해 8월 기록에는 특정 회장과 임원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다.

현재 진행중인 수당을 기부 명목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개된 근무일지에는 일부 상근 직원

들이 행사 수당을 단체 운영비 명목 계좌로 입금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화추진위는 해당 인물의 즉각 퇴출과 공명단체 정상화 대책 마련, 내부고발자 보호, 부상자회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정상화추진위 관계자는 "특정 개인이 조직을 좌우하는 구조가 사실이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명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선 실세로 지목된 당사자는 "일부 전직 임원 등을 중심으로 현 집행을 흠집 내고 있다"며 "소수의 주장을 2000여 회원 전체의 의견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무등산국립공원서 보호야생생물 '관박쥐' 서식

국립공원연구원 제2수원지 폐광서 22개체 확인

"실질적 서식지 기능 확인...폐쇄·방치 재검토"

안전사고 우려로 복구·폐쇄 대상에 오른 국립공원 내 폐광이 실제로는 보호야생생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산국립공원 내 폐광에서 보호야생생물 관박쥐가 집단 서식하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폐광 관리 정책이 안전뿐 아니라 생태 보전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이 발간한 '국립공원 동굴서식지 보전 연구'에 따르면 무등산국립공원에서 폐광(인공동굴) 4개소(광주 동구 용연동 2

개소·담양군 가사문학면 무등리 2개소)가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국립생물자원관 등 자료를 수집해 국립공원 10곳의 동굴 34개소(폐광 30개소·자연동굴 4개소)를 대상으로 박쥐류 서식 현황, 동굴 입자·구조 특징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일부 폐광에는 보호야생생물 동굴 의존 생물의 주요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중 광주 동구 용연동 폐광에는 보호야생생물 관박쥐 22개체가 서식한 것으

로 조사됐다. 과거 자료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붉은박쥐도 확인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직선형인 폐광의 규모는 높이 1.5m, 폭 1m, 길이 10m로 확인됐다. 외부와의 접근 난이도가 낮아 외부 교란 위험이 높을 수 있다. 낙반(광산·강·터널 등에서 천장이나 벽의 암석이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 위험요소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폐광 3개소(제2수원지-2, 무등광산-1·2)에서는 박쥐 등 야생생물이 없었지만 중간 갱도 붕괴, 침출수 등의



동굴서식지 제2수원지 1 폐광

위험요소가 발견됐다.

연구원은 외부 교란 위험에 동시에 노출돼 있어 동굴 보전관리 기본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위험구역 안전 표지판 설치, 연 1회 흔적 조사를 비롯해 무단출입 차단, 비점측 모니터링 체계 전환도 당부했다.

아울러 동굴 폐쇄 또는 정비사업 추진 시 사전 생물 평가를 한 후 박쥐 친화형 공법을 도입하는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국립공원 내 동굴서식지는 박쥐 등 동굴 의존 생물의 핵심 서식지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현황 파악과 관리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취약성 평가 결과 최우선 관리 대상으로는 변산반도 모항폐광을 비롯해

팔공산 금화경도, 치악산 회곡 등 3개소를 선정했다. 무등산을 비롯해 소백산 등 31개소는 관리 필요 지역으로 분류됐다. 오대산 송전폐광, 치악산 전철, 변산반도 모항폐광, 팔공산 금화경도에서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붉은박쥐 8개체가 확인됐다.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토기박쥐는 오대산 송전폐광, 치악산 전철에서 총 4개체가 발견됐다. 두 곳 모두 붉은박쥐와 동일 동굴에서 함께 서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폐광이 자연동굴을 대체하는 실질적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안전성을 이유로 폐쇄·방치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